

광주 송정역 이용객 많은데 주차장 울산·오송보다 작다

조오섭 국회의원 국감서 지적

광주송정역의 이용객이 많은데도 울산·오송보다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관련 예산도 전액 미반영된 반면 울산역은 광주송정역보다 이용객은 적지만 훨씬 넓은 주차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호남차별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 갑)의원에 따르면 주말과 휴일, 사실상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광주송정역 이용객에 대한 수요 예측 실패로 주차난·교통체증 심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지역의 역은 이용객에 비해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1월 교통영향평가 결과 일 평균 이용객은 광주역 6446명, 광주송정역 8785명으로 각각 예측됐다. 이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2015년 송정역을 증축했지만 실제로는 3배 가까운 2만646명(2019년 12월 기준)이 역을 이용해 '영터리' 수요 예측으로 역사와 주차공간이 비좁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송정역은 2015년 4월 KTX와 2016년 12월 수서SRT 개통으로 주말(금,토,일) 이용객 기준 1일 평균 2015년



광주송정역 주차장이 수요예측 실패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증축에 필요한 예산마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일 평균 이용객 2만5646명 주차장은 608면에 불과
울산역 1만7151명·1032면
오송역 1만9803명·1989면
관련예산도 호남차별 심각

5913명에서 2016년 1만6164명, 2017년 2만2504명, 2018년 2만4507명, 2019년 2만564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광주송정역은 2만5646명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오송역의 4분의 1일 불과한 연면적 5754㎡와 대합실 1738㎡(2개소), 주차장 608면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반면, 울산역의 경우 주말 이용객 1만 7151명으로 광주송정역보다 이용객이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연면적은 9167㎡, 대합실 2881㎡(3개소), 주차장 1032면을

확보하고 있다. 또 오송역도 1만9803명이 이용하면서 연면적 2만65㎡ 대합실 5408㎡(6개소) 주차장 1989면을 확보하고 있다.

조 의원은 "광주송정역과 비슷한 규모인 오송역과 비교하면 1인당 연면적 1.01㎡(오송역) 대비 0.22㎡에 불과하고 대합실 면적 또한 1인당 0.27㎡(오송역)에 비해 0.07㎡로 전체적으로 25% 규모"라며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이어 경전선 개통,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활성화 등으로 하루 3만명 이상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조기 증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 협소한 송정역을 방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즉각 국비를 반영하고 증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에 광주 송정역 증축과 관련 2021년 국비 200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군 공항 이전 난항... 정부에 쓴소리·전남엔 "협력하자"

이용섭 시장, 시정질의 답변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와 중앙 정부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러면서 전남도에는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군 공항 이전에 협력하자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21일 황현택(서구 4) 광주시의원의 군 공항 이전 관련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군 공항은 국가의 중요한 안보시설로, 군 공항 이전은 국책사업"이라며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정부는 그동안 광주 시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주었으면 이제라도 죄송한 마음으로 군 공항 이전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광주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직접 발언을 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면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반면, 전남도에는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전남도의 협력 없이는 광주 군 공항의 전남 이전은 실현될 수 없다"면서 "전남도와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 군 공항

이 이전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군 부대가 이전되는 지역은 5000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면서 "군 공항 이전 지역에 소음피해가 가지 않도록 완충지대 100만평을 조성하고, 4500억원의 현금 사업 지원과 국책사업도 지원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남도가 상생 약속 이행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협력해줄 바라고 있다"면서 "광주전남 간 소통과 협력이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지름길이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독감 예방접종을 한 뒤 사망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후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광주 남구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를 찾은 시민들이 순서를 기다리며 띄엄띄엄 줄지어 서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독감백신 맞아도 되나? 커지는 불안감

접종후 사망자 9명 발생
정은경 "연관성 확인 안 돼"
광주·전남에서는 0명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무료접종한 뒤 사망한 사람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광주·전남 지역민들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독감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고령자와 어린이들은 독감 백신 접종 여부를 놓고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오후 독감 백신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사망 사례가 총 9건 보고돼 그중 8건에 대해 역학조사와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이 진행 중"이라며 "또 같은 날짜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 백신의 제조번호로 접종받은 접종자에 대해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21일 오전까지 보고된 총 6건의 사망사례에 대해 논의했으나 특정

백신에서 중증이상 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망 사례 중 2건은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나머지 신고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부검 결과와 의무기록 조사 등 추가 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감백신 부작용 가운데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특정 식품과 약물 등의 원인 물질에 노출된 뒤 수분, 수 시간 이내에 전신적으로 일어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다.

국내에서 과거 독감백신을 접종한 이후 25명이 사망했으며, 대부분의 사인은 기저질환 관련이었다.

앞서 지난달 국가 예방 접종에 쓰일 독

감 백신을 조달하는 신성약품이 유통 과정에서 일부 물량을 상온에 노출해 접종이 전면 중단되고,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백신 48만명분을 수거했다.

이따른 독감 백신 사망 소식에 광주·전남 시도민들 사이에선 백신 접종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키우는 주부 김민선(40·광주 북구)씨는 "아이 한 명은 접종을 했고, 한 명은 컨디션 좋지 않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접종을 하긴 해야 하는데, 사망자 발생 소식을 접하고 나니 겁부터 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독감 고위험군인 어린이와 고령자는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이홍재의 세상만사 ▶2면
- 혹시 코로나? ... 감기 환자 '혼란' ▶6면
- 최형우 꾸준함 윌리엄스 감독 '굿'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August 2020

Forbes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첨단 비즈니스 지식산업센터

IT, 벤처, 스타트업, 1인기업 등 기업사옥으로 지식산업센터 인기!

허드슨 1041 첨단2지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첨단 지식산업 플랫폼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혁신 비즈니스 시대를 열다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장기저리용자가 가능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등 세제혜택

최대 70억 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청년창업, 스타트업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예정

사업개요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41번지 * 규모: 지하3층~지상15층
* 대지면적: 6,618.000㎡ * 용도: 지식산업센터(공정) 및 근린생활시설 기타지원시설
* 건축면적: 3,498.68㎡ * 연면적: 37,879.33㎡

지식산업센터 184실 | 근린생활시설 77실 |
지산·창고 21실 | 운동 및 문화집회시설 3개소 |

모델하우스 오픈중
T.372-6666

모델하우스: 광주 서구 마곡동 165-14